

대우건설, 자회사 3사 통합법인 신사업 통해 매출 6000억 목표

푸르지오서비스, 대우파워
대우에스티로 흡수 합병
주총 거쳐 6월 정식 출범

대우건설이 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6개의 자회사 중 3개 자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합병 계약식을 열고 푸르지오서비스와 대우에스티, 대우파워 등 자회사 3사를 합병해 새로운 통합법인 출범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대우에스티가 푸르지오서비스와 대우파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우건설이 통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향후 기업공개(IPO)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법인은 ▲경영관리 ▲자산개발 ▲AS ▲발전 ▲스틸(Steel)사업 ▲생산관리 등 총 6개 부문 22개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와 합병당기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푸르지오서비스 본사에서 대우에스티 지홍근 대표(왼쪽 첫번째), 윤우규(가운데) 푸르지오서비스 대표, 장복수 대우파워 대표가 합병계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대우건설

거친 후 6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대우건설은 자체 경영진단 결과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 한계를 모회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신사업 추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법인은 부동산개발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재의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는 MRO 사업, 스마트홈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가로주택정

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회사의 매출 증대 및 실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통합법인은 시너지를 기반으로 신사업을 추진해 올해 매출 2450억원, 2025년 매출 6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분상제’ 연기로 서울분양 숨통

건설사들, 7월까지 여유
서울 연내 2만여 가구 분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택시장을 바꾸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이다. 당초 4월28일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업장의 조합총회 개최가 어렵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이들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총회 일정을 못 잡고 노심초사 했던 주택 정비사업조합과 4월 이전에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은 숨통이 트였다. 오는 7월까지 여유가 생겼다.

2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에서 3월 중순 이후 연내 총 2만19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1만7000여가구다. 정비사업을 제외한 물량들은 지역주택조합, 민간도급사업 등을 통한 일반분양분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거주 예비청약자들은 서울 재정비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분산돼 선택의 폭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모델하우스 방문을 앞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정보 활용이 보편화

되고 있어 분양가 문제만 해결된다면 코로나19 여파에도 분양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주요 분양예정 단지인 서울분양시장의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총 1만2000여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만 4700여가구다. 이단지는 민간택지 분상제 유예기간이 늦춰져 협의 시간을 벌게 됐다. 그간 HUG와의 분양가로 이견을 보였다. 협의가 안된다면 후분양으로 갈 수도 있다.

롯데건설은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14차를 재건축해 짓는 280가구의 ‘르엘 신반포’를 3월 말에, 신반포13차를 330가구로 재건축해 4월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각각 67가구, 98가구 등으로 적지만 3호선, 7호선 등의 지하철 역세권이어서 관심을 끈다.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에 재개발해 총 1048가구로 짓는 ‘래미안 용두’를 오는 4월 분양한다. 이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1호선과 2호선 지선환승역인 신설동역, 1호선 제기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

5월에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분양한다. 6642가구 중 120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모산, 양재천, 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변동성 장세서 주목받는 금 거래, 어디서 어떻게

KRX 이용편 비과세에 종합세 면제

증시 변동성 확대로 금 관심 ↑
0.2% 안팎 저렴한 수수료 장점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金)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유동성 경색이 완화될 경우 금은 안전 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분을 점차 만회해 미국 단기 국채 가격(최근 수익률 하락)과의 갭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현금의 왕’이라는 금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대표적인 금 거래는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꼽을 수 있다.

◆국가공인 금시장, 매매차익 비과세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금은방을 이용한 실물 매매부터 은행금신탁, 골드뱅크 등이 있다. KRX 금시장은 지난 2014년 3월 설립돼 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개설된 국가공인 현물시장으로 한국거래소가 투명한 금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



품질은 확실하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순도 99.99%의 고품질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인정받았다.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가격은 국제 금 시세와 비교했을 때 일정한 편이다. 보통 100.2~100.3%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3일 기준 1g당 국제 금 시세는 6만710원에 형성됐다. 그때 KRX금시장에서는 6만200원에 거래되며 국제 금 시세의 99.2% 수준에 머물기도 했다. 이 같은 약 0.8%포인트 가격차는 최근 들어 금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차익 실현 수요가 일시에 몰려서다.

금거래는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이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같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0.2% 안팎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 이

는 은행 골드뱅크(1%), 은행금신탁(0.8%)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가장 큰 혜택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 다른 어떤 투자수단에서도 볼 수 없는 장점이다. 골드뱅크와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KRX 금시장을 이용하면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므로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면제된다.

◆KRX금시장 거래, 이용 방법은?

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래계좌가 필요하다. 주식 거래 계좌를 갖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에 금 거래계좌 개설을 요청해야 한다.

금 거래계좌 개설을 완료했다면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 주식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KRX금시장에 상장된 상품은 두 가지. 1kg 골드바와 100g 미니골드바다. 투자자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거래는 1g 단위로 가능하다. 6만원 가량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태화 기자 alvin@

KB증권, 비대면 신규고객 평생무료 이벤트

KB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식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비대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내주식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국내주식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은 대상 고객이 KB증권 MTS ‘M-able(마블)’과 모바일웹 계좌개설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후 KB증권 전용 MTS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홈페이지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제공된다.

KB증권은 지난 2월 ‘M-able(마블)’에 초보투자자도 사용하기 쉬운 화면으로 구성된 ‘이진트레이딩’ 모드를 오픈했다. ‘이진트레이딩’ 모드는 쉽고 빠르게 핵심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지표, 투자매력도, 투자이견을 한 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롯데건설, 물 사업 시공·연구개발 참여

롯데건설이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물 사업 분야의 시공과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3일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수장 및 상하수도관 등을 비롯해 롯데월드타워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시공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수자원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롯데건설은 포항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 건설공사, 울산 농소 하수처리시설 등 다수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공했다. 최

근에는 부안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부산광역시(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대표 건축물 롯데월드타워는 물을 활용한 냉난방 기술이 적용됐으며 준공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정화 성능을 향상하고 공사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정연우 기자

‘파봇랭크’ 첫 가입고객 수수료 혜택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벤트 진행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각종 투자서비스의 로보어드바이저 MINE앱 입점을 축하하며 23일부터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휴 서비스 중 하나인 ‘파봇랭크’ 가입 및 거래 이벤트가 첫번째다. ‘파봇랭크’는 46종의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종목 실시간 평가한 실적속보 및 각종랭킹, 연관종목 리스트, 포트폴리오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장 시작 전 당일의 종목, 중간시황 및 장 마감 후 분석 종목 등을 스마트폰 알림과 문자로 3회씩 받을 수 있는 투자 서비스다.



다음달 10일까지 첫 가입 고객은 가입 후 31일간 수수료 상환 없는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100만원 이상 주식거래 시 스타박스 커피쿠폰 2매도 지급된다.

예탁자산 200만원 이상 고객 대상으로 HTS, MTS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